

로버트 치죤 박사, 아모스: 사자가 부르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4부(B): 구원의 역사가 풀리다

(아모스 3-6장)

로버트 치죤 박사님이 아모스서에 대해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4차시(B), 구원 역사의 실타래 . 아모스 3-6장.

아모스 4장 4절부터 13절까지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라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의 핵심을 잘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악에 물든 이스라엘은 심판받으실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자, 4장 4절부터 읽어 봅시다. 이 말씀은 매우 이상하게 들립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베델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반어적이거나 심지어 비꼬는 명령, 곧 명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델로 가서 죄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들에게 베델에 가서 죄를 지으라고, 길갈에 가서 더 죄를 지으라고,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고 삼 년마다 십일조를 드리라고 지시하는 것 같습니다.

5절, 누룩 넣은 떡을 감사 제물로 드리고 너희의 자원 제물을 자랑하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것을 자랑하라.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일이니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흥미롭게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벤엘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벤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은 매우 중요한 예배 장소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길갈로 가서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비꼬는 표현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시는, 나무 오르기를 좋아하는 어린 소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나무 오르기를 고집하며, 그럴 때마다 점점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여러 번 "나무 오르는 건 싫어.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거나 더 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절대 그러지 마."라고 말했다고 해 봅시다.

하지만 그는 매일 나무에 오르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어머니는 진절머리가 났고, 그가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는 달려나가서 “어서 나무에 올라가. 떨어져서 팔이나 목이 부러져도 상관없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물론 신경을 쓰지만,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시도해 봤는데, 이제는 비꼬는 투로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아들이 “너는 정말 자유가 있고, 내가 너를 막을 수 없어. 항상 너랑 같이 있을 수 없어. 그리고 싶지 않아. 네가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바라지만, 떨어지면 결과가 좋지 않을 거야.”라고 깨닫도록 돕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배 장소에 가는 것을 고집합니다. 제사와 십일조,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헌금을 바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 도덕적 정의, 그런 것들을 의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좋아, 네가 이 일을 좋아한다고 고집하고 있으니 그냥 하라.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죄를 짓는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것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내 은총을 얻지도 못한다. 길갈로 가서 더 죄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네 모든 종교적 의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죄가 될까요? 주님은 제사를 원하십니다. 음, 죄인 이유는 주님께서 위선자들의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고전적인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제물을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손에 피가 묻어 있고 불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점입니다.

의식, 종교적 의식은 제 판단을 막을 수 없습니다. 효과가 없을 겁니다. 길갈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지만, 베델처럼 길갈도 매우 중요한 예배 장소입니다.

그는 그저 무작위로 장소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베델은 그들의 조상 야곱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길갈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요단 강을 건넌 때 처음으로 야영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 강을 건너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홍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셔서 물을 끌어내어 요단 강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길갈에 진을 쳤고, 그곳에서 새 세대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길갈은 그들의 문화적 기억과 역사 속에서

약속의 땅을 차지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갈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들이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 밭이 약속의 땅에 서 있다"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델과 길갈처럼 중요한 곳에 가면 죄를 짓는 것이며, 이 곳들과 교류한다고 해서 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제 6절, 정확히는 6절부터 11절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과거, 곧 과거와 더 먼 과거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관점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빈 배를 주었노라." 히브리인들은 사실 이가 깨끗했기 때문에, 너희가 먹을 것이 없었으므로 치실질 같은 것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모든 성읍에서 빈 배를 주었고 모든 마을에서 빵이 부족하게 했는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주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지만, 이미 백성에게 불쾌감을 표하는 신호를 보내고 계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정도 가뭄과 기근을 겪었고,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도다. 추수할 때가 아직 석 달 남았을 때에 내가 한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다른 성읍에는 내리지 아니하였더니 한 밭에는 비가 내리고 다른 밭에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여 말랐더라.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다시 한번 당신의 노여움과 다가올 심판의 신호를 보내십니다.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 이 성읍 저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돌아다녔지만, 마실 물을 충분히 얻지 못했는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짧은 후렴구를 사용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그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하려는 의도였음을 시사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순종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의 정원과 포도원을 쳐서 병충해와 곰팡이로 망쳐 놓았지만,

메뚜기가 너희 무화과나무와 올리브나무를 먹어 치웠는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혹시 기회가 되면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곳에 가서 메뚜기 떼가 움직이는 영상을 보여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정말 믿을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은 엄청난 떼로 몰려들었고, 비교적 몇 분 만에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초목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메뚜기 떼가 무화과나무와 올리브나무를 먹어 치우도록 허락하셨고, 그 결과 수확을 놓쳤고 식량도 조금 부족했지만, 그들은 아직 그 사건들을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하시고, 우리는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히브리어에서 회개를 말할 때, '돌아오다'라는 동사 '슈브'를 사용합니다. 즉,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회개해야 한다. 내가 이집트에 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에도 재앙을 내렸다. 나는 너희 젊은이들을 칼로 죽이고, 너희의 포로가 된 말들을 죽였다.

내가 너희 진영의 악취로 너희 코를 채웠지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씀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렸듯이 너희 중 일부를 무너뜨렸다.

꽤 심각했을 거야. 너는 불에서 꺼낸 불타는 나무 같았지만,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구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 시대는 번영의 시대였지만, 이 시대가 발전하고 심판이 가까워짐에 따라, 주님께서는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런 일들을 이 나라에 가져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주의를 끌려고 애쓰시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다가올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분은 매우 구체적인 실물 교훈을 통해 그들이 불순종하고 있으며 언약의 저주가 실현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 주십니다.

이 모든 내용은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26장에 언급되어 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여라."

여기서 이상한 점은, 다음 구절에서 그가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할지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이미 해왔던 일을 계속하고 더 강화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처럼 이 부분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니,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갈 것이다. 방금 말한 대로 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그런 일을 더 많이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 내가 심판하러 올 때, 너는 나를 가까이서 직접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시편에서 나온 듯한 구절이 나옵니다. 산을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며, 자신의 뜻을 사람에게 나타내시고, 새벽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시니라. 그래서 그는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묘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며 원문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비평가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음, 이제 원문에 다 들어있잖아요."

누군가, 설령 부차적인 것이든 뭐든, 누군가는 그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임무는 그것이 여기에 어울리는지, 아니면 원문에 없는지 따져 묻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어울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이 부차적인 것이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당신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출처 비평가들의 행동 방식이 가끔은 답답합니다.

그러나 산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자, 내가 누구인지 말하여라.

나는 산을 만든다. 나는 안정의 상징인 산을 만든다. 나는 산처럼 안정적이고 견고하며 오래가는 것들로 모든 것을 만들었다.

하지만 바람을 만드는 것도 나야. 그다지 안정적이지 않은 무언가 말이야. 실재하는 바람이지. 파괴적일 수도 있지만, 잡을 수는 없어.

바람을 쫓아가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산은 안정적인 것을, 바람은 좀 덜 안정적이고 보기 어려운 것을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제 책임입니다.

나는 온 세상과 온 자연을 형성하고 창조했습니다. 나는 창조주로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며, 인류에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이는 예언자들을 통해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걸 우리가 이미 이 섹션, 3, 4에서 봤던 주제인데, 여기서 그는 그걸 핵심으로 짚어내고 있습니다. 새벽을 어둠으로 바꾸는 자는 누구인가. 흠.

음, 알겠습니다. 저는 하루하루의 순환을 책임지고 있지만, 새벽을 어둠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빛을 어둠으로 바꿀 수도 있죠. 이걸 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왜냐하면 빛은 생명과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있고, 어둠은 죽음과 파괴의 상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길을 걸으며 땅의 높은 곳을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시나요? 그들이 내려오고 저는 산 위를 걷습니다. 음, 제 생각에는 그분이 폭풍 구름 속에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구름 속에서 오십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이러한 신현(神現)이 있을 때, 즉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아시다시피, 신현은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실 때는 종종 폭풍과 먹구름, 천둥, 번개를 치며 오시니, 그래서 내가 창조주인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한다. 나는 예언자들을 통해 내 의도를 인간에게 전달한다.

나는 낮을 어둠으로 바꿀 수 있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건 나야. 심판할 수도 있어.

나는 네 안전한 작은 세상을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고, 구름 속을 떠다니며 산 위를 걷는 존재가 될 거야. 마치 네게 심판을 내릴 준비를 하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 그가 "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네가 심판자로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바꿔 말할 수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마치 "네가 내게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 같냐?"라고 말하는 은밀한 방식과 같아. 왜냐하면 그가 방금 "네가 돌아오지 않았어, 네가 돌아오지 않았어, 네가 나를 만날 거야"라고 말했기 때문이야. "나는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

산부터 바람까지,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어. 내가 계속 말해 왔고, 너를 통해 내 의도를 드러내 왔고, 심판의 어둠을 가져올 거야. 나는 어둠의 구름 속에서 올 테니, 너는 그저 준비만 하면 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게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4장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서 보는 원리는 인내심 많으신 하나님께서 때때로 당신의 백성을 회개로 이끌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언급하신 것처럼, 그분은 매우 인내심이 많으시고, 그들의 행실을 바꾸도록 애쓰십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을 대하신 방식은 비록 문맥에 따라 다르고, 보편화하는 데 신중해야 하지만, 저는 그것이 인류를 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처럼 온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했으며, 인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은 반역하는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해 오셨습니다. 반역의 결과를 끊임없이 생생하게 일깨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대부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하며, 최악된 행로를 계속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처럼,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형식주의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베델과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행위에서 어떻게든 영적 안정감을 얻으려 하는 거죠. 종교, 종교 의식, 종교 말입니다. 결국,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했지만 인류의 관심을 끌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만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주권자이신 창조주께서 최후의 심판을 집행하시면서 역사는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이에 대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경험 속에서 행하신 일은, 제가 말했듯이, 사실상 하나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물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의 노력을 그저 거부하고, 사람들은 매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그저 거부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고대 이스라엘과 매우 흡사하며, 저는 거기에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특정 세션에서는 5장의 일부, 1절에서 17절까지만 다룰 것이고, 저는 이것을 10번째 재앙 재검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집트에서 10번째 재앙이 무엇인지 기억합니다. 아시다시피, 유월절인데, 주님께서 지나가시고 모든 이집트인의 맏아들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이 섹션의 마지막에 그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암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저는 문학적 단위가 시작과 끝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핵심 주제, 말하자면 펀치라인은 종종 마지막에 나옵니다.

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을 진행하면서 이 점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매우 흥미로운 구조적 패턴을 사용하는데,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소통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부분이 많고 처음에는 다소 체계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읽어 나가면서 '와, 정말 중요한 구조구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주제적 진술이 있고, 중간에 아주 중요한, 마치 중간에 전환점이 있는 것 같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구전 문학입니다.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기록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메시지를 어떤 맥락에서 전달했을 때는 구전이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설교했습니다. 두루마리를 들고 나가서 모두에게 두루마리를 나눠주면서 "좋아요, 두루마리를 읽어 보세요. 그러면 이야기해 보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설교자였습니다. 마치 목사님이 설교할 때처럼 구두로 하는 설교였죠. 구두 발표와 글로 하는 발표의 규칙은 약간 다릅니다.

교수님 논문을 쓰다가 너무 많이 반복하고 정리가 잘 안 되면 교수님이 지적하실 겁니다. 교수님도 지적하시겠지만, 구술 문학이나 구두 발표에서는, 설교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을 통해 설교자들은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복은 중요합니다.

배움의 어머니, 특히 무언가를 들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종이에 적힌 말씀을 읽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읽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이해될 수 있죠. 선지자는 나가서 이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될 것은 그가 어떤 개념을 소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A라고 부르고, 그는 그것을 기반으로 더 발전시킬 것이고, 이것을 B라고 부르고, 그는 그것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고, 이것을 C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약간 중심 아이디어처럼 보이는 아이디어에 도달할 것이고, 그런 다음 그는 주제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는 C, B, A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시작했던 곳에서 끝나고, 그 과정에서 1, 2, 3, 4, 3, 2, 1로 이동합니다. 이것을 카이아즘이라고 하는데, 기본 형태가 A, B, B, A이고, 그리스 문자 키와 같으며, 저는 이것을 거울 구조라고 부릅니다. 후반부는 전반부를 반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동심원 구조라고 부르는데, 제가 구약학 박사 과정을 밟을 때 본문을 연구하고 구절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이런 구조를 많이 보곤 했습니다. 제 아내는 타이피스트였는데, 아시 다시피 비서이자 타이피스트로서 정말 능숙했습니다. 아내가 제 논문을 타이핑해 주면 제가

적어주면 아내가 타이핑해 주었죠. 그래서 아내는 제가 공부하는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너도 이런 카이아스무스 기법을 많이 봤잖아.”

정말 그런가요? 지어낸 건가요? 그냥 창의적이고 참신하게 표현하려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뎡, 제 아내 이름은 뎡이에요.”라고 말했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라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창의적으로 표현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본문에서 보고 느낀 바를 그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음, 그 직후에 반 파라낙 이라는 학자의 논문을 읽었는데, 그는 DTS 졸업생이었고 미시간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서 문학에 대한 논문을 몇 편 썼습니다. 심리언어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는 성서가 구전 문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구전 문학에서는 특정한 구조적 패턴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구전적 맥락에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인 ABAB는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지서에서 항상 이런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구원으로 전환할 겁니다. 주님께서 심판을 가져오시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심판으로, 그리고 다시 구원으로 돌아갈 겁니다. 바로 아밥(ABAB)이죠. 마치 벽에 두 가지 색깔로 칠한 판넬과 같아요. 흰색과 검은색, 흰색과 검은색 같은 거죠.

패널이라고 부르죠. 다른 방법은 뒤집는 거예요. 후반부가 전반부와 동심원이 되도록 말이죠. 아바.

이것을 카이아스무스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을 확장해서 ABCD, ABCD처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ABCD, DCBA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시각적 자료는 없습니다. 색깔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쉽고, 제 앞에는 바로 그런 내용을 담은 개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훑어보면서, 그리고 제가 읽으면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본문의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점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장 1절은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드리는 애가”로 시작합니다. 그다지 희망적인 말은 아닙니다. 그분은 애가를 부르실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키나'인데, '탄식'을 뜻합니다. 누군가 죽을 거라는 뜻이죠. 애도의 노래입니다.

그건, 그건 애도예요. 애통이에요. 죽음의 언어예요.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애통하는 이 말이니라. 죽음이 네게 임박하였도다. 그리고 2절에서 그는 이 말을 조금 더 발전시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무너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요, 자기 땅에 버려져 일으켜 세울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성읍에 천 명이 나가더라도 백 명만 남을 것이다. 너희 성읍에 백 명이 나가더라도 열 명만 남을 것이다.

침략자가 쳐들어오면 사상자가 90%에 달할 것 같습니다. 군대는 전멸할 겁니다. 진군하는 도시는 군사 행동을 시사하는데, 침략자에게 파괴될 겁니다.

앞 구절에서 그는 이스라엘을 은유적으로 언급하며, 그녀를 처녀 또는 젊은 여자, 타락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여자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녀는 처녀입니다.

그녀는 쓰러질 것이고,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 없을 겁니다. 애초에 그녀는 취약한 상태이고, 적이 들이닥치면 그냥 쓰러져 쓰러질 겁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하지만 방어는 불가능할 겁니다. 다시 말해, 남자들, 즉 군대의 보호를 기대하는 젊은 여성들은 그런 일을 겪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무너질 겁니다. 군대가 진군하면 그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고, 적들은 들이닥쳐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요.

이것은 애통할 만한 일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죽음을 암시하는 애통입니다. 그는 4절에서 화제를 조금 바꿀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봐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4절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찾아야 합니다. 무슨 뜻이든 말입니다.

그는 나중에 두 번째 B 섹션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만 말합니다. 탄식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다시 베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앞서 그는 “베델에 가서 죄를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길갈로 가서 더 많은 죄를 지으라고. 아니, 그건 그냥 은유적이고 시적이며 풍자적인 표현일 뿐이야. 이게 진짜야.

베델을 찾지 마라. 너는 나를 찾아야 한다. 찾으려면 살 것이다. 그러나 베델에서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내가 왜 하나님의 집에 가서 그분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거기에 가서 하는 일, 즉 온갖 제사와 예물, 그리고 그 모든 위선적인 일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베델에 가서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런 짓은 하지 마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길갈로 가지 마. 거기 가지 마.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브엘세바로 가지 마라. 그곳은 남쪽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베델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했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첫 번째 야영지가 바로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과 함께하셨습니다. 브엘세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그곳에서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족장들이 저를 만난 곳이라고 해서 꼭 거기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길갈이 반드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베델은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로 이 구절에서 그가 제가 말했던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베델은 A라고 부르겠습니다. 길갈은 B라고 부르겠습니다. 브엘세바는 C라고 부르겠습니다. 길갈은 B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2절에서 베델과 길갈을 반대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들은 한 절에서 작은 단위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더 큰 연설에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서 그가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성경의 문학적 예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요소가 아주 많이 있고, 성경 외의 문학이나 같은 문화권의 문학보다 성경에서 더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사용하고, 이러한 기법들을 사용하지만, 성경만큼 예술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제게는 이것이 성경이 단순한 인간의 책이 아니라는 간접적인 증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저자들에게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예술적이고 마음을 사로잡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길갈은 유배될 것입니다. 영어 번역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정말 주의를 끌죠.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길갈, 갈로 이글 . 좋아, 다시 해 보자. 하길갈, 갈로 이글 .

G와 L이 당신을 향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나요? 마침 유배를 뜻하는 동사가 '갈라' 입니다 . 길갈의 이름처럼 G와 L이 있죠. 아시다시피, 이걸 소리로 하는 장난인데, 선지자들은 이런 걸 좋아하니깐요. 그래서 당신의 관심을 끌 겁니다.

구두 전달 상황에서, 우리가 소리 놀이 또는 말장난이라고 부르는 이런 종류의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들을 때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인 베델은 아빠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곳이 될 것입니다. 말장난은 많지 않지만, 길갈과 베델은 연기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들은 제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비록 그곳들이 특별한 장소이고 당신에게 그토록 큰 의미를 지닌 곳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심판은 아주,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적 위선과 혼합주의는 제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당신들이 그 곳을 타락시켰으니까요.

당신들은 이 장소들을 당신들의 부패 때문에 심판받아야 할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는 다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좋아, 주님께서 계속 나에게 나를 찾으라, 주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델이나 길갈, 브엘세바에 가서 그렇게 할 것 같았는데, 그는 “안 돼, 거기 가지 마.”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테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불처럼 요셉 지파들을 휩쓸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요셉의 자녀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였고, 요셉은 북왕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큰 지파였으며, 심지어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종종 북왕국, 즉 이스라엘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불처럼 요셉의 지파들을 휩쓸 것입니다.

그 불이 그들을 삼킬 것이요, 하나님의 집 베델에는 그것을 끝 자가 없으리라. 불이 오고, 마치 하나님의 집마저도 집어삼킬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곳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곳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을.

4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방금 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만물을 창조하였고, 너희가 즐겨 가는 이 신전들과 예배소들보다 더 크다.” 이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애통해할 만한 일임을 보았습니다. 심판이 임박했기에 백성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것은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질문한다면,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는 죽게 되는 겁니까? 왜 이 애가를 불러야 합니까?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좋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7절에 보면, 정의를 괴로움으로 바꾸고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도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동족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일, 그들을 이용하고, 속이고, 권력을 이용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빼앗는 일 말입니다. 그들은 정의를 비참함으로 바꿔버립니다. 정의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과 정신에 뭔가 울림이 느껴집니다. 저는 서부극을 좋아해요. 옛날 서부극을 좋아해요.

최신 서부극 중 몇몇은 너무 잔혹해서 보기 싫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세인>이나 <하이 눈> 같은 옛날 서부극은 두 시간 동안 악당들이 라이커 형제라는 악당에게 응징을 당하는 장면만 기다리고, 그 후에 잭 윌슨이 불쌍한 토리를 총으로 쏘아 죽입니다. 세인도 뭔가 해야 할 것 같고요.

현실 세계에 대한 교훈, 맞아요. 우리 모두 정의를 원하지만, 타락한 세상에서 누군가, 어떤 용감한 사람이 나서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세인은 잭 윌슨과 맞붙습니다. 스포일러 주의: 아직 안 보셨다면, 이 영화는 70년도 더 된 영화라서 안 보셨다면 안 보셨을 거예요 .

세인은 잭 윌슨을 총으로 쏘 죽이고, 라이커 형제도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어린 소년에게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엄마 아빠께 이 계곡에 더 이상 총이 없고 평화가 올 거라고 전해 줘." 그렇게 정의가 실현되었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면 정말 마음이 놓입니다.

세인이 그들을 제거하는 장면은 정말 폭력적이지만, 그래도 나름의 안도감이 있어요. 우리는 정의를 사랑하니까요. <하이 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악당들, 밀러 갱단 같은 놈들이 나타나서 불쌍한 게리 쿠퍼가 혼자 남게 되고, 그레이스 켈리가 나타나서 끝나기 전에 그를 조금 도와주지만, 결국 게리 쿠퍼는 악당들을 물리치죠.

전형적인 서부극이죠. 존 웨인은 항상 결국 정의를 구현하죠.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좋아요. 신은 정의의 신이시며, 궁극적으로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신 앞에 서야 할 것이고, 역사 속에서 신은 종종 정의를 구현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짓을 하면서 정의를 쓴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끔찍한 맛이 나고, 어쨌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의를 마치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냥 던져 버립니다. 그냥 땅에 던져 버립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정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본성과 요구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편 모드로 들어가 볼까요. 마치 찬송가처럼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플레이아데스와 오리온을 만드신 분을 찬양하는 노래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별자리를 알고 있었던 거죠.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점성술 같은 걸 이용해서 별자리에 정말 심취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하늘의 별들을 관찰했죠.

그들은 실제로 별들이 신과 천체라고 생각했습니다. 플레이아데스와 오리온을 만드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그 모든 별들을 만드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에서 그들은 그 별들을 하나님의 천상 모임의 구성원들과 연관지었습니다.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상 모임의 구성원들이었죠. 어쩌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천사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는 한밤중을 새벽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둡게 하여 밤으로 만드시며, 바닷물을 불려 지면에 쏟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라는 그의 이름이십니다. 저는 8절의 요점이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눈부신 섬광으로 요새를 무너뜨리시고 견고한 성을 폐허로 만드십니다. 온 자연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그토록 빨리 바꾸실 수 있는 위대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꾸실 거예요. 당신은 심판받을 거예요. 바로 그 중심에 있어요.

바로 이 작품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불의를 저질렀고, 신성한 심판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제 다른 주제들로 다시 돌아가서 비난을 계속하겠습니다. A, B, C, D가 있었다면 이제 C가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얼마나 부당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법정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자를 미워하고 진실을 말하는 자를 혐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죗세를 부과하고 그들의 곡식에 세금을 부과하는군요.

그러므로 네가 돌로 집을 짓는다 해도 그 안에 살지 못할 것이며, 푸른 포도원을 가꾸고 심는다 해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네 허물이 얼마나 많고 네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고한 자를 억압하고 뇌물을 받으며 가난한 자의 재판을 박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들은 이런 때에 침묵합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지 안다면, 이런 불의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입을 다물 것입니다.

울부짖지 마세요. 그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에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저 살아남고 싶어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종류의 불의가 있을 땐 그냥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고발의 내용을 확대하여 그들이 죄인임을 분명히 했고, 바로 그 때문에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는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살려면 악이 아닌 선을 구해야 합니다.

너희가 의롭고 선하고 정의로운 것을 구함으로써 여호와를 찾는구나. 그러면 너희가 말하는 대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 너희가 베델에 가서 더 많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구나.

그러지 마세요. 당신은 선을 추구합니다. 회개하고 옳은 일을 하며, 그릇된 일을 멈춥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법정에서 정의를 수호하라.

어쩌면 조금은, 아시다시피, 주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은 먼 길을 왔고 선을 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실지도 모릅니다. 마치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들이 회개한다면 저는 남은 자들을 기꺼이 보존할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모든 광장에서 통곡과 고통의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농부들은 울부짖으라고 부르심을 받고, 애곡하는 자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다. 모든 포도원에 통곡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애통으로 돌아가, 바로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울부짖는다. 죽음이 왔다. 우리는 애통해한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끝맺습니다. 이것이 열 번째 재앙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리라.” 출애굽기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가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문에 그 피가 있는 것을 보면, 네 집에서 아무도 죽이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면했지만, 그는 이집트를 지나가면서 그들을 죽이려 한다. 살인 천사가 장자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다.

그래서 마치 이집트가 반복된 것 같아요. 이집트가 반복된 거죠. 그러니까 저기서 그 혼란스러운 구조를 보셨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몰락은 애통할 만한 일입니다. 심판이 임박했으니 백성은 회개해야 합니다. B. 그들은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C. 그들은 신의 심판자를 만날 것입니다. D.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백성은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C. 다시 한 번. 그러므로 백성은 회개해야 합니다. B. 하나님의 심판은 애통을 가져올 것입니다.
A.

그리고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시니까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여기서 볼 수 있는 원리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5장을 끝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5장을 끝내고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로버트 치죤 박사님의 아모스서 강의입니다. 아모스: 사자가 부르짖으니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4차시(B), 구원 역사의 실타래가 풀리다
아모스 3-6장.